

화 담 송

2010. 9. 5

연중 제 23주일 다해

시편 90(89), 3-4. 5-6. 12-13. 14와 17

(후렴) 주 님, 당신은 대 - 대 료 저 희 안식쳐가 되셨나이 다.

1. 인간을 면지로 돌아가게 하 시 - 며,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.
"사람들아, 돌아 가 - 라."
2. 당신이 그들을 쓸어내시니,
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 - 고,
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 옵 니 다.
3.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 소 - 서.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 리 이 다.
4.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 소 - 서.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 리 이 다.

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 - 고, 한 토막 밤과도 같사 옵 니 다.
아침에 돌아나 푸르렀 다 - 가,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 나 이 다.
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 리 이까?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 소 - 서.
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 소 - 서.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.
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 소 서.

알 렐 루 야

(후렴) 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 알 렐 루 - 야

주님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 시- 고,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.
- 천주교 부산교구 성음악연구소 -